

경오년 새해를 맞아 전국의 온돌인 여러분과 가족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축원한다.

지난 한해는 우리나라 경제가 안팎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은 해였다고 하겠으나 온돌분야에서는 끝없는 발전을 추진한 해였다고 판단된다.

월간「온돌」지가 매호 구성과 내용면에서 온돌문화의 창조와 온돌기술보급에 견인차 역할을 다해왔고 1989년도판 「주택난방총람」이 발간되어 무언가를 보여준 것이 단적인 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기 칼럼 15 주택에너지관리지혜

에너지 바로쓰기가 더욱 절실한 해

그러나 최근의 유가를 비롯하여 전력·가스 등 각종 에너지가격의 하락과 안정세의 지속이 가정용 에너지를 고급화 추세로 이끌고 있고, 이는 에너지 소비절약의식이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자못 염려스럽기도 하다.

따라서 새해에는 에너지 소비절약의 최첨병이라 할 수 있는, 가정에너지의 근간을 담당하고 있는 온돌인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해가 아닌가 생각하며, 온돌기술보급 등에 의한 원천적인 가정에너지절약에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기원한다.

에너지 소비절약이란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여유있고, 가장 편리함을 추구하는「에너지바로쓰기」로서 다같이 힘모아 이룩한 지난날의 성과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에 과소비가 일지 않도록 에너지소비의 현주소를 알아 보기로 한다.



이 정 기

'49년 경남 의령출신으로 명지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에너지관리공단 홍보과장, KBS 가정에너지상담위원, CBS 가정에너지상담위원으로 있다.

1986년 이후 국내유가는 46%, 전기요금은 23%가 인하여 저유가시대가 됨에 따라 에너지절약의식이 이완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1984~1986년 기간중 1%의 경제성장에 0.75%의 에너지소비 증가가 있었으나, 1988년에는 똑같은 1% 경제성장을 위해 0.9%의 소비증가가, 작년 상반기에는 에너지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율을 앞서고 있어 에너지부문에 과소비가 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불과 10년전 석유 파동이라는 격동을 체험한 뒤 우리의 생활자세는 어땠는가 빌딩이나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운행이 중단되었을 때 에너지절약일환이라는 핑계를 대면 고장을 나무라기보다는 절약이 중요하니까 무사 통과되었다.

추울때 보일러가동을 조금해도, 더울때 에어컨가동을 중지해도 에너지절약이란 말 앞에선 더이상 시비를 걸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불편이라도 감수하고, 무던히도 참아오면서 생활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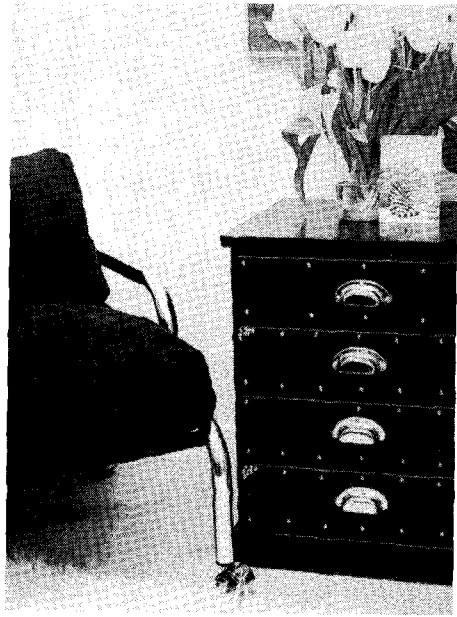
뿐만아니라 지금도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관한 한 모든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생활 주변을 살펴봅시다. 직장 또는 사회의 나이든 선배들한테서는 절약일변도의 생활이 몸에 밴 것을 볼 수 있지만 젊은층에게는 약간의 둔화 내지 이완감같은 것을 느낄수 있다.

그렇다고 나무라거나 강요하기란 매우 곱고려운 일이 되고 있다.

예전과 같이 무작정 안쓰다거나 아끼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아니기 때문이다.

1986년 이후 단행된 국제유가인하로



국내유가를 지금까지 무려 7차례의 인하 대행진을 거듭해 왔고, 덩달아 소비는 증가하기 시작했다.

1987년까지만 해도 중·대형승용차 판매율이 10%미만이던 것이 1988년에는 20%를 넘었고 작년에는 30%를 육박했다.

엘리베이터의 격충운동, 창가조명등 끄기, 적정실내온도유지, 네온사인광고 규제 등이 언제의 일이었나는 식으로 고삐가 풀리고, 의식이 희석되어 가고 있고, 저유가시대가 영원할 것 같은 착각속에서 에너지를 대량소비하는 생활을 누리고 있다.

1980년대의 세계각국의 연간 총에너지 소비증가율을 보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2%내외에 불과하나 우리나라는 10%가 넘어서 에너지소비증가율에선 단연 세계제1위가 되었다.

1986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에너지 원단위의 국제간 비교에서 프랑스는 0.26TOE(석유환산톤)이고 일본이 0.28, 서독은 0.30, 미국은 0.57, 우리나라는 0.68TOE로서 아직도 더 아낄수 있는 여력이 많으며 지금 일고 있는 과소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1인당 연간에너지소비량을 나라별로 비교해 봐도 (1987년 기준) 석유환산량으로 일본은 3.1톤, 프랑스는 3.5톤, 서독은 4.4톤, 미국은 7.6톤, 캐나다는 9.0톤, 우리나라는 1.6톤으로서 아직도 우리의 에너지소비량 증가 잠재력은 과소비를 하지 않고도 생활의 수준과 질의 향상에 따라 무한히 크다는 점도 깊이 인식해야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의 에너지사정은 어떤가.

세계석유소비의 지속적인 증가 및 OPEC의 석유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라 국제유가의 폭등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 World Bank의 전망에 의하면 1992년경에 원유를 비롯한 일차상품의 대폭적인 가격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에너지자원의 유한성과 소비증가에 따른 시장경제 원칙상 피할 수 없는 일로서 불과 몇년 남지 않은 유가의 대폭인상시기 즉 제3의 석유과동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1970년대와 같은 곤욕을 피할 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에너지절약의 길」에 있다.

그렇다고 에너지절약의 길이 피안의 세계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생활 주변에 있다는 점으로서 우리의 생활자세를 각성해 볼 필요가 있다.

1988년말 동경에서 열린「에너지의 효

율적 이용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일본의 자원에너지청 장관의 격려사에서 “세계에서 에너지절약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 노력하면 지금 소비하는 에너지원단위를 30%이상 더 줄일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 심포지움에는 그들은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미국, 서독, 프랑스 등 선진 세계각국의 고위층들이 함께한 자리라고 하니 알만한 일이다.

고유가시대가 도래했을 때 살아 남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

호트러지지 않는 자세와 지속적인 에너지소비절약과 이용효율의 향상을 통하여 현재의 급속한 에너지소비 증가세를 완화시키는 한편, 낭비적인 에너지소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각종 에너지절약 기술개발과 보급, 에너지절약 실천 생활이 정착되어야 하겠다.

뿐만아니라 작년부터 번지기 시작한 「과소비」란 유행어를 우리생활에서 빨리 떨치고 전통적인 근검 절약의 미풍양속을 되살려야 하겠다.

아무쪼록 경오년 새해를 맞아 전국의 온돌인 여러분과 가족여러분께 「에너지 바로쓰기」가 더욱 절실한 새해라는 인식을 함께 할 것을 당부드리며 90년대의 힘찬 출발이 있으시길 빌어마지 않는다.